

1분기 확대 사목회의 화합의 웃놀이 9일 기도, 구역 당 예비신자 권면 1명 이상



하여 생명·사회사목분과로 개편 ▲수석부회장의 본당 구역편성이 현실적 불합리하다는 제의가 있어 다음 사목협의회에 설문조사 발의를 하였다. 이어 주임 신부님께서 '중고등부 미사와 청년미사의 통합은 1개월간 한시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성을 점검한 후 재결정하겠다. 이제 좋으신 수녀님들께서도 부담하셨고 수녀님의 분담하신 업무에 전권을 위임하겠다. 올해 예비신자 입교 권면을 각 구역 당 1명 이상 입교시켜 훌륭하신 수녀님의 교육할 예비자 교리반이



서울대교구 시흥4동 성당 사목협의회는 3월 17일(주일) 오후 1시 교목관 그리스도 왕 홀에서 2019년 1분기 확대 사목협의회를 주임 신부님과 수녀님, 사목협의회 분과장과 산하 단체장이 포함된 41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확대 사목협의회는 사목회장의 시작 기도와 복음 봉독 이후 각분과 서면 활동 보고 외 추가안건으로 ▲ 전례분과 4월부터 1개월 한시적 토요일 오후 6시 중고등부 미사와 주일 오후 6시 청년미사를 통합 하고 토요일 6시 미사는 특전 일반 미사로 변경. ▲ 기획·홍보분과는 본당 화합의 웃놀이 한마당 추진계획과 구역 대진표 추천. ▲여성구역분과의 제5차 음식판매 보고, ▲교육·선교·생명분과의 생명분과원을 사회사목분과에 통합

풍성하도록 해야 한다. 본당 화합의 웃놀이 한마당 행사를 하기 전 사목협의회는 화합을 위한 9일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임 신부님의 교구 사제 연수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있습니다. 연수 중 평일 미사는 27일 10시 본당 출신 김홍년(다니엘) 신부님께서 집전하시고 다른 요일 새벽 미사와 저녁 미사는 주임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또한 그동안 보좌 신부님을 모시기 위해 교적 정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부활 대축일 이후 본당 교적을 현실화하여 알찬 성당으로 구역 개편에 적용하기로 하겠다.'는 말씀과 마침 기도와 신부님의 축복으로 협의회가 끝난 후 구역 웃놀이 대진표 추천이 있었다.

